

2024-12-02 (2024-47호)

12월 02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조정받지 못하는 원화..달러 방향성 대기하기

서울, 12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단기 달러 움직임을 결정할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대기하면서 하방경직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85-1410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한국 펀더멘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층 굳어졌다.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 결정보다는 구조적인 수출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을 마주한 아슬아슬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앞서 반영하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의 변동성 관리 의지로 환율의 급등세는 막히고 있지만, 환율 상승 심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 글로벌 달러가 약세 조정을 받았지만 달러/원은 이러한 흐름을 전혀 따르지 못했다. 달러/원 환율이 조금 밀릴 때마다 사자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하락 우호적인 대외 여건에도 달러/원은 별다른 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재료는 미국 월간 고용지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견조한 고용시장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고용 결과를 통해 시장은 12월을 비롯한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할 것이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1월 18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허리케인 영향 등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전월비 1만2000개 증가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주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한 시장 움직임이 있을지 관건이다. 지난주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해진 영향 속 달러지수는 11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5.6까지 떨어졌다.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한 이후 단기 달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달러/원은 하방경직성을 유지한 채 이러한 재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에는 미국, 중국, 유로존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등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는 11월 외환보유액, 10월 국제수지(잠정) 등이 나올 예정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이슈

금융시장은 지정학, 글로벌 무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12월을 맞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은 시장을 뒤흔들고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을 뒤집었다.

### ◎ 변동성

트레이더들은 앞으로 몇 달이 어떻게 될지 맞봤다.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으로 달러는 더욱 강세였다.

달러는 캐나다와 멕시코 통화 대비 1.5% 이상 상승하는 등 트럼프 관련 헤드라인과 정책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11월 유로는 2022년 초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한편, 독일 채권 수익률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2월 이후 가장 많이 급등했고, 미국 증시는 올해 월간 최대폭 상승했다.

이제 변동성이 큰 12월이다. 트럼프는 제쳐두고 미국과 유로 지역 금리는 하락하고 일본 금리는 상승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안도(중동)와 공포(러시아/우크라이나)를 가져올 수도, 정치적 혼란(프랑스, 독일)은 가중될 수도 있다.

### ◎ 프랑스 예산 둘러싼 긴장

프랑스에서는 600억 유로에 달하는 고통스러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포함된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됐다.

극우 국민전선의 지도자이자 연정 파트너인 마린 르펜은 이 문제로 정부를 전복하겠다고 위협했고,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국채가 너무 심하게 매도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는 독일 대비 10년 채권 프리미엄이 2012년 위기 당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돌아갈 정도로 시장이 흔들렸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안을 오는 월요일에 강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관세 공포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믿음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위협은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다. 다만, 중국 본토 주식.CSI300 은 트럼프가 공약에서 주장한 60%보다 낮은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소식

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이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몇은 궁극적인 결과는 중국의 첨단 기술에 관한 자급자족 추진 가속화라고 말했다.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국가는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일본으로, 닛케이.N225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이후 약 1.4% 하락했으며 대부분 자동차 주식이 주도했다.

### ⊙ 美 고용지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12월 연방준비제도 회의를 앞두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기 위해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견고한 성장세는 연준의 소비자 물가 안정 노력을 되돌릴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올 한해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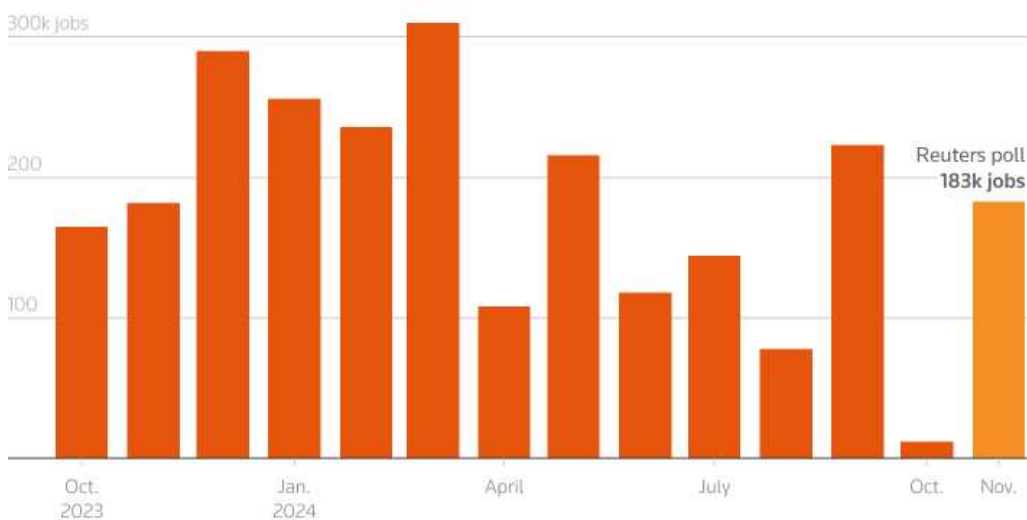
그러나 10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결과와 같은 고용지표가 발표되면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꺾어놓으면서 주식 랠리의 근간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정책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를 얼마나 더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다.

로이터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미국은 19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 US nonfarm payrolls seen to recover from storm slump

The U.S. is estimated to have added 183,000 jobs in November, according to the median of a Reuters poll of eight economists. The forecast is up from just 12,000 jobs recorded in October when hurricanes hampered data collection for the jobs survey.



Sources: LSEG Datastream, Reuters polling | REUTERS, Nov. 26, 2024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금리 경로와 주식 힌트 제공할 고용지표

뉴욕, 12월2일 (로이터) - 이번 주에는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추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S&P500지수는 연초 대비 25%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성과 중 일부는 2024년 75bp의 차입 비용 인하 이후에도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9월 고용지표 호조 등 견조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반등해 지난 2년간의 물가 안정 성과를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양호한 경제에 대한 증거를 대체로 환영하지만, 또 다른 강력한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일자리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기본 추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가는 이미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금리 선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내년 말까지 금리가 현재 4.5~4.75% 범위에서 3.8%로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이는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견고한 고용 시장과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그 이유로 들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사미르 사마나는 연준이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 얼마나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후반 선물은 연준이 12월 17~18일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약 70%로 책정했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1월 19만5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예측을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발표되면 신뢰가 흔들리며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어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새그림비니가 말했다.

그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다면 약간의 매도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및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이 인플레이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에 증시는 상승했다.

최근 며칠간 증시는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

럼프의 공약을 외면했다.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56.4%로 낙관론이 더 강해졌다.

한편,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22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가수익비율(P/E) 밸류에이션이다.

야데니 리서치는 지난 목요일 메모에서 "관세보다 주식시장 랠리에 더 즉각적인 위험은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2월2일 (월)

⊙ 한국은행: 부총재 FSB 총회 (2~5일, 홍콩)

12월3일 (화)

- ⊙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KTB 국제 컨퍼런스 (15:00)
- ⊙ 한국은행: 장용성 위원 뉴스우스웨일스대학교 세미나 (3~7일, 호주)

12월4일 (수)

- ⊙ 한국은행: 2024년 1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신용평가사 Fitch 연례협의단 면담 (16:00)
- ⊙ 기획재정부: OECD 12월 세계경제전망 (18:00)

12월5일 (목)

-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방문 (14:30)

12월5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한국은행: 총재 SEACEN 총재회의 (6~7일)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2월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11월		49.0
12월2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11월	50.5	50.3
12월2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1월	45.2	45.2
12월2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0월	6.3%	6.3%
12월2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11월		48.8
12월2-6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1월		1,239.0B
12월3일	00:00	미국	ISM 제조업 PMI	11월	47.5	46.5
12월3-10일	00:00	미국	자동차판매	11월		3.050M
12월4일	00:00	미국	JOLTS 구인건수	10월		7.443M
12월4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1월		52.0
12월4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11월	49.2	49.2
12월4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0월		-0.6%
12월4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 29일 주간		208.0
12월4일	22:15	미국	ADP 전국 고용	11월	150k	233k
12월4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1월		57.0
12월5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0월		0.2%
12월5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1월	55.6	56.0
12월5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0월	0.0%	0.5%
12월5일	21:30	미국	첼린저 해고건수	11월		55.597k
12월5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 25일 주간	215k	213k
12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MM	10월	0.4%	-1.3%
12월6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3분기	0.4%	0.4%

12월6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1월	195k	12k
12월7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12월	73.3	71.8
12월7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0월	10.00B	6.00B
12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11월		3.261T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2일 (일)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국경제리서치연구소 컨퍼런스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3일 오전 5시1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퀸즈상공회의소 주최 행사 참석 (3일 오전 6시30분)

12월3일 (화)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디트로이트 경제클럽에서 통화정책 관련 연설 (4일 오전 2시 3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미드웨스트 농업 컨퍼런스 폐회사 (4일 오전 6시45분)

12월4일 (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10시30분)
- ⊙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룸버그/글로벌상호의존센터 주최 심포지엄에서 연설 (오후 10시45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서밋 행사 참석 (5일 오전 3시45분)

12월5일 (목)

- ⊙ 나카무라 BOJ 정책위원, 히로시마 재계 지도자 대상 연설 및 기자회견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샬럿 지역기업연합 2024 경제전망 행사에서 연설 (6일 오전 1시30분)

12월6일 (금)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주리 은행가협회 컨퍼런스 화상 참석 (오후 11시1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은 주최 경제전망 심포지엄 참석 (7일 오전 0시30분)
-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씨티클럽 포럼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7일 오전 2시)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후버연구소 주최 행사 참석 (7일 오전 3시)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국민연금 최근 스팟시장에서 달러 매도**

서울, 11월27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이 달러/원 스팟시장에서 달러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달러 매수 주체인 국민연금이 달러 매도 쪽 수급에 힘을 싣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 소식통은 "시장에서 연금이 스팟으로 달러를 팔고 있다"면서 "전술적 헤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리밸런싱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100% 환오픈을 원칙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지만, 해외자산 규모의 5% 이내에서는 전술적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술적 외환익스포저 비율은 -3.07%로 141.32억달러 매도 헤지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례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10%까지 달러/원 헤지비율을 늘릴 수 있다. 7월 말 기준으로는 이와 관련한 포지션은 없다.

다른 소식통은 "연금 물량이 꽤 나왔다. 해외자산 비중을 넘어서면 팔아야하는데 리밸런싱 관련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목표 비중은 각각 15.4%, 33.0%인데, 8월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3.2%로 목표 대비 낮은 반면 해외주식은 34.2%로 목표를 초과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약 6% 떨어진 한편 나스닥지수는 약 8% 급등했다.

미국 증시 급등과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자산 리밸런싱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연기금은 11월 중 코스피를 1.9조원 매수해 2020년 3월 3조원 이후 최대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른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편, 외환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연장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도 증액 확대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규모는 500억달러다.

다만, 국민연금의 외환스왑 소진 정도가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확인 이외 한도 증액에 따른 실질적인 수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달러/원 1390원대 중반 갇힌 흐름..외환달러들, 외환당국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서울, 11월28일 (로이터) - 복수의 외환달러들은 외환당국이 달러/원 상승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25bp 전격 인하했다.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러한 결정 이후 달러/원 환율은 상승시도에 나섰지만 이후 반락한 뒤 1390원대 중반에서 갇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달러들은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추정했다.

한 은행 달러는 "당국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충분한 의지와 수단 있다고 강조하며 환율 변동성 관리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FACTBOX)-트럼프 관세 영향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

11월2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공약하면서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업종별, 알파벳 순):

### ◆ 자동차 제조업체

#### \*아우디

멕시코 산호세 치아파에 위치한 폭스바겐의 VOWG\_p.DE 아우디 공장은 5,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Q5를 생산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에 약 176,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멕시코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거의 4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 \*BMW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에 있는 BMW의 BMWG.DE 공장은 3시리즈, 2시리즈 쿠페, M2를 생산하며, 거의 모든 생산량을 미국 및 기타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한다. 2027년부터는 순수 전기차 '뉴 클라쎄' 모델 라인을 생산할 예정이다.

#### \*비야디

중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 002594.SZ는 멕시코 공장 부지를 찾고 있지만 이 공장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 \*혼다 자동차

혼다 자동차 7267.T 는 멕시코 생산량의 80%를 미국 시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아오야마 신지 최고 운영 책임자는 11월6일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차량에 영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생산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JAC 모터스

JAC 모터스( 600418.SS )는 2017년부터 멕시코에서 자이언트 모터스와 합작 투자하여 JAC 브랜드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지난 8월 SAIC가 소유한 600104.SS MG가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000270.KS )는 멕시코에 자사 차량과 현대자동차( 005380.KS )의 미국 수출용 싼타페 SUV 소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 \*마쓰다

마쓰다( 7261.T )는 2023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약 12만 대의 차량을 수출했다. 모로 마사히로 사장은 11월7일 관세 문제가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닛산 자동차

닛산 자동차( 7201.T )는 멕시코에 두 개의 공장을 두고 미국 시장을 겨냥한 센트라, 베르사, 킱스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2024년 1-9월 멕시코에서 약 505,000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 회사는 이 중 몇 대가 미국 시장에 수출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STLAM.MI )는 멕시코에 램 픽업과 밴을 생산하는 살틸로 공장, 지프 컴패스를 생산하는 톨루카 공장 등 두 개의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에도 크라이슬러 모델을 생산하는 윈저 공장, 현재 개조 중이며 2025년 신형 지프 모델을 생산할 브램튼 공장 등 두 개의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 \*토요타 자동차

토요타 자동차( 7203.T )는 멕시코의 두 공장에서 타코마 픽업트럭을 생산한다. 2023년 미국에서 타코마를 23만 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이는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타코마를 생산했었지만, 현재는 멕시코 공장에서 전량 출하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폭스바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푸에블라에 있는 폭스바겐의 VOWG\_p.DE 공장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며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도 가장 큰 공장 중 하나이다. 2023년 이곳에서 미국 수출용 제타, 티구안, 타오스를 포함해 약 35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다.

### ◆자동차 공급업체

**\*오토리브**

세계 최대 에어백 및 안전벨트 제조업체인 스웨덴의 오토리브( ALIVsdb.ST)는 멕시코에서 약 1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미쉐린**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 MICP.PA )은 멕시코에 두 곳, 캐나다에 세 곳의 공장을 두고 있다.

**\*안핑**

중국 시트 제조업체인 안핑 오토모티브 인터리어는 수 년간 멕시코에서 생산하여 제너럴모터스( GM.N )와 토요타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해 왔다.

**\*기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미국 시장에 자동차 생산을 제공하는 다른 부품 제조업체로는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피렐리 PIRC.MI,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브렘보 BRBI.MI, 이탈리아의 유로그룹 라미네이션스 EGLA.MI 등이 있다.

테슬라( TSLA.O )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유로그룹 라미네이션스는 전기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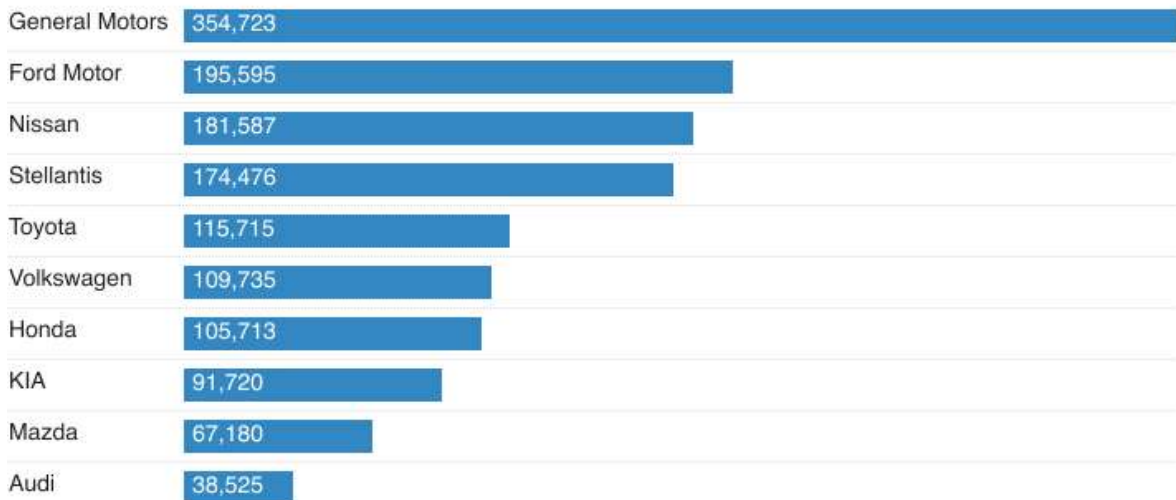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2023년 멕시코에 설립 예정인 공장을 주로 공급하기 위해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테슬라는 원래 2025년 초에 멕시코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텍사스 공장의 확장 계획으로 크게 변경했다.

## U.S. firms lead car exports from Mexico to North America

Exports of light vehicles from Mexico to North America from January to July 2024, 90% of which went to the United States.

● Exports



Note: Data compiled and published by AMIA from Mexico's statistics agency INEGI.

Source: Asociació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Mexican 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 ◆ 전자

### \*폭스콘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제조업체인 폭스콘( 2317.TW )은 엔비디아( NVDA.O )와 협력하여 멕시코에 거대한 인공 지능 서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25년 초 생산을 시작하여 엔비디아의 새롭고 강력한 블랙웰 AI 반도체 제품군이 포함된 수냉식 서버를 생산할 계획이다.

### \*레노버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버 0992.HK 는 2021년 확장한 멕시코 몬테레이의 대규모 부지에서 서버 및 기타 데이터 센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레노버는 북미 시장을 위한 모든 데이터 센터 제품을 몬테레이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 \*LG 전자

LG전자( 066570.KS )는 멕시코 공장에서 TV, 가전제품,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11월26일 무역 정책 변경을 포함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 005930.KS 는 멕시코에서 TV와 가전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 소매업

스웨덴 패스트패션 소매업체 H&M( HMB.ST )은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H&M의 가장 큰 생산지 중 하나다.

회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보호하는데 주력하여 향후에도 미국 내 매장 및 온라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공산품 제조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프록터앤갬블( PG.N )과 유니레버( ULVR.L )는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노출된 대형 공산품 업체 중 하나이다.

수입 데이터 제공업체 임포트에티에 따르면 9월 말까지 3개월간 P&G의 선적량 중 약 10%가 멕시코산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유니레버의 미국 해상 수입 중 약 2%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와 펩시코( PEP.O ), 레이스 칩스 등 대형 소비자 관련 업체들은 멕시코 공급망에 총 수익 달러를 투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